

# 복식에 표현된 청색 이미지의 고찰

Study on the Images of Blue in Apparel Design

강 병 희

(주) 풍연물산 정보팀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조교수

## 1. 서론

## 2. 청색이미지의 고찰

### 2-1.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

### 2-2. 청색이미지의 분류

## 3. 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

### 3-1. 현대복식에 나타난 청색의 변화

### 3-2. 현대복식에서의 청색이미지

### 3-3. 국내의류제품에 사용된 청색

## 4. 결론

## 참고문헌

## Key Words

color image, blue, colors in fashion, color trend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images of blue based on expressive values communicated by color on symbolic aspects and the blue images expressed in modern apparel fashion. Images of blue are classified through the document studies as follows : The expressive values of blue are cold, receding, and sedative. Based on these values, affirmative images of blue are classified infinite, lofty, peaceful, tranquil and contemplate. Negative images are classified sad, indecent, rebellious, and indignant. In apparel fashion, blue acted as a important image factor in classic, workwear, military and marine look. Blue green and purple blue in pale, greyish and light tones were showed as trend color. Meanwhile, purple blues in dark greyish, pale and greyish tones were more used for domestic womens wear.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색을 대상으로하여, 청색이 전달하는 이미지의 색채표현 특성을 파악한 후, 색채관련 문헌자료의 고찰을 통하여 상징적 측면에서 청색이미지를 분류하였다. 또한, 20세기 이후의 복식 룩(look)을 중심으로하여 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를 고찰하였고 국내 의류제품에 사용된 청색의 색채경향을 파악하여 복식에 주로 사용된 청색과 그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청색은 한색, 후퇴색, 진정색이라는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에 의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로서는 신성함, 고귀함, 무한함, 정신, 낭만, 깨끗함, 차가움의 이미지를 전달하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울함, 반항, 악마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현대 서구 여성복식에서는 회색면 색조를 제외한 다양한 청색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식에서는 클래식 룩과, 위크웨어 룩, 밀리터리 룩, 마린 룩 등에서 어두운 청색이 주요한 이미지 요소로 작용하여 전통적인, 보수적인, 남성적인, 딱딱한, 절제된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흰색과 배색되어 산뜻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최근 국내 의류제품에 사용된 청색의 색채경향 분석결과에서는 보라면 청색의 주로 연하거나 어두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7/'98 F/W까지의 유행예측색으로서의 청색에서는 녹색면 청색과 보라면 청색의 연하고 밝고, 탁한 색조가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오늘날 색채는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또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감성적 측면의 반응을 유발하는 디자인 요소로서 색채는 형태, 재질감 등과 함께 전체적인 이미지의 형성 및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로서 적절히 사용된 색채는 미적효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의 전개에 있어서 색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제품에 사용되는 많은 색채 중 청색은 선호되는 상품의 색채경향 중 하나로 여름 화장품이나 환경보호를 표방하는 세제 등의 패키지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세대를 대상으로한 자동차나 무선 호출기 등의 선호색으로도 등장하고 있다(월간 디자인, 1994, p.106). 또한 복식에서도 청색은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에콜로지 패션에서 오염되지 않은 지구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91년 프르미에르 비전(Première Vision)에서도 '에콜로지 블루(ecology blue)'라는 테마로 정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90년대의 인간심리를 반영하는 시대의 색으로서 청색이 제시되기도 하였다(허인주, 1992, pp.72-77). 이러한 예들은 청색으로 전달되는 이미지에 근거하여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달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색채는 언어적 한계를 능가하는 의사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 색상일지라도 명도나 채도에 따라 그 색채의 이미지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색채표현 특성에 의한 색채이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되는 문화 안에서 성립된 상징적 의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색채 이미지는 디자인의 제분야에서 디자이너가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이미지에 부합되는 색채계획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색채이미지의 특성을 토대로 청색 이미지의 색채표현 특성을 파악하고, 상징적 측면에서 청색이미지를 분류하여 청색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미지의 특성을 규명한 후, 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복식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색채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 2. 청색이미지의 고찰

### 2-1.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

색채는 형태와 더불어 표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체성을 통하여 정보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Arnheim, 1981, pp.433-434). 이때 색이 갖는 표현적 힘은 형체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의사전달시 색채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 감정을 일으키므로써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국가, 민족, 문화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 국가나, 민족, 문화별 혹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하는 보편성을 띠기도 한다. 또한 다른 색과의 배색 시는 이미지의 표현성이 커져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강화되는 특성을 지니며(박은주, 1995, 김학성, 1995, 박상호, 1993), 이러한 색채이미지의 특성은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에 따른 다양한 인상과 감정효과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색채의 표현력에 의한 것으로 한 색채에서 받는 인상은 색채의 삼색성과 관련하여 달라지게 된다. 이중 특히 색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은 한난감과 더불어 진출 및 후퇴성, 흥분 및 진정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청색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색의 이미지를 이루게 되는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한색

청색은 시원하다, 차갑다 등의 심리적 온도감을 일으키는 한색계의 대표적인 색이다. 청색이 춥다, 차다 등의 온도감과 연관되는 것은 청색에서 물이나 얼음, 찬 공기가 연상되기 때문으로 추위, 냉각등의 표시로 사용된다(하용득, 1992, p.217). 또한 연하고 희미한 겨울하늘이나, 먼 그림자, 또는 수면이나 눈, 얼음의 표면 등을 연상케하며, 식품과 같은 제품에서는 깨끗함이나 신선함, 방부제 등과 연관된 개념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Berry & Martin, 1991, p.18).

#### ② 후퇴색

색의 시각적 효과의 면에서 청색은 실제의 거리보다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후퇴색으로, 바탕색이나 배경의 효과를 주는 배색으로 사용된다(하용득, 1992, p.217). 후퇴색으로서의 청색의 시각적 특성은 높은 하늘이나 깊은 바다와 같이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

에 무한감이나 신비, 이상, 정신적인 것, 그리고 고귀함이나 거룩함 등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청색의 표현성은 실제 디자인에 사용시 여행과 강한 연관성을 갖기도 하는데, 즉 청색을 광고나 포장에 사용할 경우 하늘이나 바다, 그외 먼 곳을 연상케 하여준다(Russel, 1990, p.18). 진출색이 강렬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는 반면, 후퇴색으로서의 청색은 보다 열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전해준다(Beaumont, 1994, p.78).

### ③ 진정색

청색은 빨강색이나 주황색과 같은 흥분색의 반대로 갈색이나 어두운 회색 등과 더불어 진정색의 대표적인 색이다. 이와같은 특성 때문에 청색은 우울함에 연관되어 우울증 또는 템포가 느린 음악인 블루스(blues)나,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나쁜 월요일인 블루먼데이(blue monday)등, 청색으로 표현된 단어가 많다. 이 밖에도 청색은 소극적이며, 내성적, 지성적임을 암시하고 일반적으로 성장이 멈춰진 조용하고 어두운 겨울의 자연에 알맞는 색이며, 그늘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다(하용득, 1992, p.215, pp.217-218).

한편, 청색은 녹색, 회색과 더불어 전형적으로 안정이나 휴식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색채로 건강 혹은 은행, 보험회사의 저축 프로그램과 같이 보장이나 믿음 등을 목적으로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어 우호적인 감정이나 자신감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Berry & Martin, 1991, pp.30-36, Beaumont, 1994, p.111).

이상에서 분류된 바와 같이 청색은 색채에 의한 표현성 측면에서 차갑고 후퇴하며 진정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청색의 표현적 특성들은 통합되어 청색이미지라는 색채이미지를 이루게 되며, 무게감, 경연감 등 기타 감각들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다른 청색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2. 청색이미지의 분류

앞에서 분류된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에 의해 지각된 색채는 특정한 문화배경 안에서 그 색채로 전달되는 상징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청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색채관련 문헌자료(Birren, 1993, Hope & Walch, 1990, Colour, 1988, 하용득, 1993, Zelanski & Fisher, 1989)를 고찰한 결과 크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색채 관련 문헌이 주로 서양문화와 관련되어 고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청색의 이미지는 주로 서

양문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2-2-1. 청색의 긍정적 이미지

#### ① 신성, 고귀의 청색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역사적, 상징적으로 신성함이나 고귀한 존재를 상징하여 기독교 미술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맑은 하늘의 파란색이 사용되었다. 성모 마리아의 옷이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하늘에서의 성모마리아의 지위를 상징하며, 때로는 좀 더 짙은 색을 사용하여 성모 마리아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였다(Colour, 1988, p.212, Pastoureaux, 1992, p.132).

왕족이나 귀족과 관련되어 고귀함을 나타내는 청색의 예로 프랑스 왕가 문장에 사용한 청색을 들 수 있으며, 블루블러드(Blue blood)는 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청색은 최상(best)을 뜻하는 말과 동의어로서 에드워드 3세 이후 '블루 리본(blue ribbon)'이라는 단어에서 상징화되어 그후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것, 위대한 것에 적용되어왔다. 경마의 블루리본을 비롯하여, 블루 칩(Blue-chip)은 최상의 질, 또는 주식투자에서의 안전한 투자를 의미한다(Colour, 1988, p.212).

#### ② 무한, 정신, 지혜의 청색

청색은 투명하면서도 영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며 후퇴색이기 때문에 사람의 망막에 흐릿한 상을 맺게하여 멀리서 보면 그리 잘보이지 않게되고, 동일한 거리라도 더 멀리있는 것으로 보이게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청색은 무한감을 나타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간을 '영원히 지속하는 파란 것'이라고 불려 시간적인 무한감을 청색으로 나타냈으며, 유태교의 경우 청색은 우주를 형성하는 4원소의 하나인 공기를 나타내는 색으로 공간적인 무한감과 관련된다.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여러 세기 계속되어 르네상스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다 빈치의 경우에도 청색은 공기를 나타내는 색이라 하였다(박은주, 1995, p.106, Birren, 1993, p.220).

한편 청색은 자연계에서는 별로 생산되지 않는 색이며, 청색을 쉽게 볼 수 있는 하늘도 일정한 모양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나, 지혜, 그리고 죽은 뒤의 생명 등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정신은 파란색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Hope & Walch, 1990 p.179, Birren, 1993, p.222).

우리나라의 경우 청색은 백색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색채어로 청자, 청산, 청송, 독야청청 등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의 이미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하용득, 1992,

③ 낭만, 행복, 평화, 휴식의 청색

청색은 낭만적인 색이며 진실한 사랑의 색이다 (Pastoureau, 1992, pp.31-32). 또한 독일의 낭만파 시인 노발리스(Novalis)의 '푸른 꽃'에서는 동경의 상징이며, 뵘기에의 작가 메테링크(Maeterlink)의 '파랑새'에서는 행복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동요에 등장하는 파랑새도 길조를 상징하는 색이다. (하용득, 1992, p.212),

서양의 깃발에서 파란색 문장은 일반적으로 경건과 신의를 의미하는데, 초기 미국의 도상에서 청색은 정직과 평화를 상징한다(Hope & Walch, 1990, p.131). 유엔, 유네스코, 유럽의회 등 대부분의 국제기관에서 깃발의 색으로 사용되는 청색은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Pastoureau, 1992, p.32).

또한 청색은 휴식과 수면을 불러일으키는 색으로(Birren, 1993, p.82), 푸른색은 주변환경을 차분하게 가라앉게하는 효과를 내고 혈압을 낮추어 병실이나 기타 휴식용 방의 색으로 적절한 색이다(Pastoureau, 1992, p.32).

④ 깨끗함, 차가움, 예방의 청색

청색은 물이나 얼음, 찬공기가 연상되는 한색이기 때문에 춥다, 차다 등의 온도감각과 연관되어 추위나 냉각 등의 표시로 많이 사용된다. 생활용품과 관련되는 제품에서 청색은 흰색과 더불어 깨끗한 특성을 암시한다. 식품의 포장에서 청색은 차갑거나 방부제가 첨가된 특성들을 연상케하여 치즈나 건조식품, 칼로리가 낮은 식품의 포장을 나타내는 색채 표시로 적당하다(Hope & Walch, 1990, p.6, p.135)

한편, 파랑색은 예방을 뜻하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지에서는 가축이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파랑색을 사용하였다(Birren, 1993, p.61).

2-2-2. 청색의 부정적 이미지

① 우울함, 고독의 청색

아퀴르(azure)색이 하늘의 여왕으로서의 성모 마리아의 지위를 나타내는 색인 반면, 어두운 블루-블랙(blue-black)색을 입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Zelanski & Fisher, 1989, p.33). 이와같이 청색은 'feeling blue', 'blue music'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울함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사또루 후지에 의하면(1992, p.68), 우울함이나 슬픔과 연관되는 청색의 이미지는 후퇴색이라는 청색의 특성과 연관되어 멀어져보이는 그래서 현실세계와 떨어져보이는 색으로 인식되며, 이는 자기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을 바라볼 때의 고독이나 고뇌, 실의나 절망을 나타낸 것이다.

② 금지, 반대, 반항의 청색

청색 법(blue laws)은 개인적 또는 공적인 윤리나, 특히 안식일 감시를 의미하는데, 17세기에 법률이 인쇄되었던 파란색 종이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에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주류의 판매 등에 적용되고 있다(Hope & Walch, 1990,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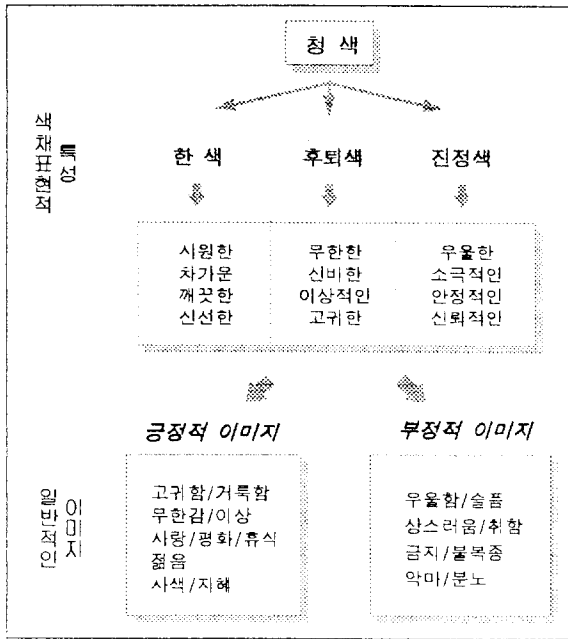
영국 왕족을 나타내는 색인 주홍색에 반하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당원이나 장로교파들은 청색을 반대를 표시하는 표지로 택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는 계속 이어져 후에 휘그당이나, 보수당원, 미국 남북전쟁시 북군과 경찰을 대표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블루 스타킹(blue stocking)'이라는 말은 18세기 중반 사회적 관심사와 대조되는 파란색 스타킹을 착용하였던 여성들의 모임을 일컫는다(Colour, 1988, p.212). 또한 오늘날 블루 진은 젊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③ 악마, 지하세계, 분노의 청색

옛 회랍의 이원론에서 청색은 어둠에 가까이 있는 음의 색으로 청색의 이미지 중에는 검정과 연관성에 의한 것도 있다. 즉 이집트의 색채에서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Osiris)는 종종 청색으로 그려졌으며, 일본의 카부키에 사용되는 색채에서 청색은 악마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또한 중국사람들은 극에서 화를 나타낼때 파란 얼굴의 가면을 사용하였다(Hope & Walch, 1990, p.111, p.178, Colours, 1988, p.212).

그외에도 청색은 비숙련 노동자를 뜻하는 블루 칼라(blue collar)로 표현되고 '블루 가운(blue gown)'이나 '블루 무비(blue movie)'와 '블루 유머(blue humour)'는 부도덕하거나 상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블루 먼데이(Blue Monday)'는 사순절의 고행에 앞서 과도하게 알콜을 섭취한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으로 이와같이 청색은 취기를 의미하기도 한다(Colour, 1988, p.212).

이상과 같이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것들이 청색의 보편적 이미지 또는 문화에 따른 다양한 청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형성하고있으며 이는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청색의 색채표현 특성과 이미지

### 3. 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

본장에서는 복식에서 사용된 청색의 실례를 중심으로 하여 청색이미지를 고찰하므로써 일반적 청색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복식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청색의 이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세기 복식색채의 변화에 있어서 청색의 변화 및 사용에 영향을 준 요인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청색의 색채적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복식스타일 중에서 청색이 주요한 이미지 형성요소로 작용하는 복식 룩(look)에 관하여 고찰하므로써 현대 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를 분석하였다.

#### 3-1 현대 복식에 나타난 청색의 변화

현대 복식에 있어서 유행 경향은 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제, 문화, 예술, 기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요소들의 영향에 의해 변화된다. 따라서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과 관련하여 복식 색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의 네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현대 복식에서의 청색의 색채경향 변화를 고찰하였다.

**문화·예술의 영향** : 아르누보가 예술계 전반을 지배한 1900년대 복식의 색채는, 이러한 아르누보의 영향과 당시의 낙천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대체로 환하고 부드러운 파스

텔 색조가 주된 색채였다(Marshall E. L., 1988, p.114). 청색 또한 여성의 미를 강조하던 당시 복식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주로 옅고 부드러운 연한 청색이 사용되었다.

한편 1910년대 러시아 발레의 무대의상에서 보여진 선명한 색채구사와 동양풍의 모드는 많은 예술분야 중 특히 복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은 1920년대 아르데코 복식에까지 계속되었는데, 청색의 경우 다채로운 색채와 배색되어 사용되었으며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전해주는 밝은 청색이나 짙은 감청색 등이 사용되었다.

예술양식 중 초현실주의는 1930년대 복식 색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이다. 30년대에는 현실성을 벗어난 과장되고 요란한 색채가 사용되었는데, 당시 복식의 배색에서 히야신스 청색과 코코아 브라운(cocoa brown), 그리고 터퀴즈 블루(turquoise blue)와 자주색(prune)의 배색은 겨자색과 회색의 배색과 더불어 30년대의 특징적인 대담한 배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Marshall E. L., 1988, p.120).

**기술의 발달** : 유행의 변화와 가속화에 영향을 주는 과학 기술적 진보(Horn & Gurel, 1981, pp.137-139)는 복식의 색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그 한 예로, 제2차 산업혁명기에 발명되었던 애닐린(anilin), 네온 블루(neon blue), 인디고 블루(indigo blue) 등 여러가지 합성염료들의 발명에 의하여 1910년대에는 밝고 화려하면서, 강렬한 청색이 등장할 수 있었다.(Nunn, 1982, p.167, in 정홍숙).

또한 1950년대에는 독일의 바이에르(Bayer)사에 의해 애실란 블루(Acilan blue, 혹은 kingfisher)라는 최초의 터퀴즈 블루의 면직물용 반응성 염료가 개발되므로써 터퀴즈 블루 색상은 인기색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터퀴즈 블루는 핑크색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색이 되었다(Hope & Walch, 1990, p.119).

**정치·경제적 상황** :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도 의복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즉, 불안정한 사회상황에서 색채는 가라앉고 짙게되며, 부흥기에는 밝아진다. 또한, 정치적 관심의 쏠림에 있는 나라의 민속적인 색채가 유행하게 되기도 한다.

1930년대의 복식색채의 경우 전쟁도발의 분위기에 의해 색채 또한 가라앉은 색조를 나타내었는데, 청색에서는 네이비 블루(navy blue), 카뎃 블루(cadet blue)등 어두운 색채가 의복에서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반면 1947년 디오르(Dior)가 발표한 '뉴 룩(New Look)'으로 색채는 연한 터퀴즈 블루 등 더욱 산뜻한 청색 파레트를 나타내었고, 이와같은 분위기는 1950년대로 이어져 베이비 블루(baby blue), 그리고 다소 채도가 낮은 스카

저 베이비 블루(baby blue), 그리고 다소 채도가 낮은 스카이 블루(sky blue)의 색채가 인기가 있었다(Hope & Walch, 1990, pp.302-303).

'젊음'으로 특징지어지는 1960년대는 젊은이들의 상징적인 복식이었던 히피룩(hippi look), 진즈룩(jeans look)에서 당시의 특징적인 인디고 블루 색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밝은 색채와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사이키델릭한 밝은 청색도 나타났다(유명선, pp.105 -106). 1980년대에는 에콜로지 경향이 반영되어 깨끗한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청색이 중요하며, 프르미에르 비종에 의해 1991년 S/S의 유행색으로 짙은 청색인 에콜로지 블루(ecology blue)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안향신, 1993, pp.70-77).

스포츠의 영향 : 스포츠는 최근 70여년 동안 유행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20년대에는 1910년 경부터 시작된 스포츠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어 복식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결과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세일러 패션은 감색의 바지와 툴롱(Toulon)의 프랑스식 선원복에서 나온 흰색과 청색의 줄무늬 윗옷이 특징이었으며 이와같이 휴양복에서는 청색과 흰색이 주요한 복식색채로 사용되었다(Black & Garland, 1988, p.235).

한편 1970년대 말 스포츠가 일종의 강박관념화되어 모든 종류의 의복이 이에 영합되게 되었으며(Lee-Potter, 1984, p.82), 일렉트릭 블루(electric blue)와 같은 밝은 색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당시의 여가복에서는 로얄 블루(royal blue)등의 밝은 청색조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Lee-Potter, 1984, pp.242-247). 1980년대 복식에서는 검은색이 전반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운동복은 밝은 색조를 띠어 녹색, 보라색, 핑크, 현란한 오렌지, 마젠타 등과 더불어 청색으로는 터퀴즈 블루등이 사용되었다(Hope & Walch, 1990, p.303).

이상과 같이 20세기에 들어 복식의 색채에서 보여진 청색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그 이미지를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청색을 문헌에 제시된 색채명 및 수식어를 토대로 하여 PCCS의 12색조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청색은 회색면 청색톤을 제외한 모든 색조가 골고루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밝은 (b)색조와 어두운 (dk)색조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3-2 현대복식에서의 청색이미지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세 복식에 나타난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청색이 주요한 이미지 형성요소로 작용하는 복식 룩에 관하여 살펴보므로써 현대복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색이 주요한 색채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복식룩(look)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되었다.

<표 1> 현대복식 색채에 나타난 청색의 시대별 변화

( ): tone

요인 년도	문화예술	기술	정치·경제	스포츠
1900	연한청색(P)			
1910	밝은청색(b), 네이비블루(dk),	네온 블루(b), 인디고블루(dk)		
1920	밝은 청색(b)			
1930	밝은 청색 (히아신스청색(b) 터퀴즈 블루(b))		어두운청색 (네이비블루 (dk), 카맷블루(d))	어두운청색 (네이비블루 (dk): 흰색과의 배색)
1940			우중중한 청색(d)	
1950		밝은 청색 (터퀴즈 블루(b))	연한 청색 (메이비블루 (lt), 스카이블루(lt)	
1960			밝은 청색 (사이키델릭 블루(dp))	
1970				밝은 청색 (일렉트릭블 루 (lt) 로얄 블루(s))
1980				밝은 청색 (터퀴즈블루 (b))
1990			짙은 청색 (에콜로지 블루(dp))	

클래식 룩 (Classic look) : 클래식 룩은 유행에 관계없이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평이한 스타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클래식 룩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색채라 일컬어지는 색상의 차분한 색조와 무채색이다(박화순, 오희선, 1994, p.216). 청색중 네이비블루는 특정 유행색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되는 클래식한 색채이다.

클래식 룩의 대표적인 보기의 하나인 블레이저는 네이비블루의 무늬없는 더블 브레스트드로 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이와같은 네이비 블루는 클래식 룩의 중요한 요소로 다소 형식적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워크웨어 룩 (Workwear look) : 워크웨어 룩은 스포티 룩(sporty look)의 일종으로 점프 수트(jump suit), 오버롤(overall), 워크 셔츠 등 작업복, 노동복, 사무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능적, 실용적 요소가 강한 캐주얼 이미지의 패션이다(복식 사전, 1991, p.50). 이와 같은 워크웨어 룩에서는 데님 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며, 색채에서는 청색이나 회색 등 유니섹스한 이미지의 색이 사용된다(오희선, 박화

순, 1994, p.221). 이와같이 워크웨어 룩에서 보여지는 청색은 인디고 염색한 데님의 색, 또는 오래입어 색이 떨어진 청바지의 색 등 짙은 청색으로부터 바래어 떨어진 청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활동적이며, 캐주얼하고 다소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 밀리터리 룩은 군복풍의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 군복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밀리터리 스타일은 군복이나 또는 그것에서 영감을 얻은 옷과 액세서리에 이르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에 견장이나 브레이드, 금속 버튼 등으로 군복풍을 강조한 옷을 일컫는다(Fashion Today, 1995, p.50). 밀리터리 룩의 대표적인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행했던 실용복(utility clothes)으로, 색채는 주로 가라앉은 색조였는데, 청색의 경우 네이비 블루같은 어두운 색으로 딱딱하고 절제된 검소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복식사전, 1991, p.35). 이와 같은 밀리터리 룩에 사용되는 청색인 네이비 블루는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와 남성적인 딱딱함을 전해준다.

**마린 룩 (Marine look)** : 마린 룩은 해군 수병복 룩을 말하며, 세일러룩이라고도 한다(복식사전, 1991, p.33).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해군 제복, 일반 선원들의 복장, 요트 등의 바다와 관련된 것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으로 흰색과 네이비 블루, 빨강색 등을 바탕으로한 밝고 청결하며 선명한 색의 사용이 특징으로 줄무늬와 닳을 모티프로 한 휘장 등이 많이 사용된다(오희선, 박화순, 1994, p.222).

마린 룩은 1930년대의 휴양복에 사용된 후 지금까지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네이비 블루와 흰색이 조화를 이룬 배색이 마린 룩이나 세일러 룩의 주된 특징이며 배 위에서나 휴양지의 해변에서 착용하는 의복으로 유행하였다(Bond, 1992, pp.98-99). 이와 같은 마린 룩에서 사용된 청색은 네이비 블루이며 주로 줄무늬로서 흰색과 배색되거나, 때로는 노랑색, 빨강색등이 함께 배색되므로써 산뜻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대 복식에서 주요한 룩을 이루는 청색은 워크웨어 룩을 제외하고는 주로 짙은 청색인 네이비 블루이며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청색에 의해 전달되는 대표적 현대 복식 룩

룩	의복항목	색상	이미지
클래식 룩 (Classic look)	블레이저, 프렌치 코트, 카디건 수트 등	어두운 청색 (네이비 블루)	전통적인 보수적인
워크웨어 룩 (Workwear look)	진, 점프 수트, 오버롤	얇은 청색, 짙은 청색 (인디고 블루)	캐주얼한 활동적인 남성적인
밀리터리 룩 (Military look)	군복형 코트, 자켓	어두운 청색 (네이비 블루)	딱딱한 절제된
마린 룩 (Marine look)	세일러복, 크루징 블레이저	어두운 청색 (네이비 블루: + 흰색)	산뜻한 스포티한

### 3-3 국내 의류제품에 사용된 청색

현대 서구 복식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한 복식에 나타난 청색과 국내 의류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청색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재의 의류제품에 제안되고 사용되는 청색을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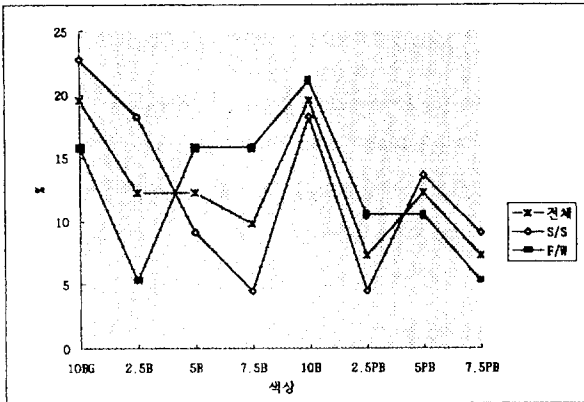
즉 해외 각 유행정보기관이 제시한 청색과 국내 여성복에서 사용된 청색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복식에서 사용된 청색의 색채경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유행색으로 제안된 청색은 '96년 봄/여름(S/S)부터 '97/98 가을/겨울(F/W)까지의 색채경향을 예측한 국내외 유행정보기획사의 정보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87개의 색채에 의해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여성복에서 사용되는 청색 경향은 '96년 1~2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33개 국내여성복 브랜드의 '93 S/S~'96 S/S까지의 상품기획에 사용된 청색샘플을 348개를 CE7000으로 측색한 후 그 특성을 먼셀 40색상과 PCCS 톤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색의 범위는 한국공업규격에서 청색의 범주로 정의된 먼셀기호 10BG에서 7.5PB까지로 하였다.

#### 3-3-1. 유행정보지 조사에 의한 청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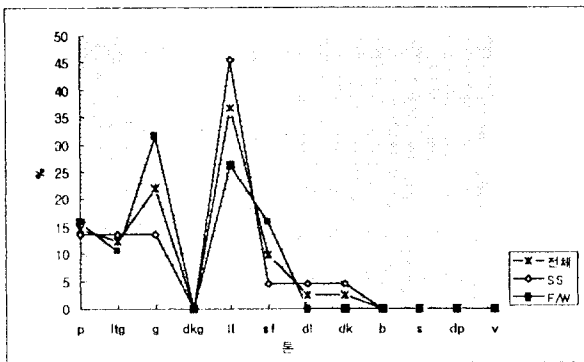
'96년 이후 유행색으로 제시된 청색의 색상 및 톤의 경향은 <그림2>과 <그림3>과 같이 나타난다. 즉 색상은 10BG와 10B가 각각 1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5B, 5B, 5PB의 순이며, 2.5PB와 7.5PB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녹색편 청색과 보라편 청색이 유행색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보면 S/S의 경우 10BG가 가장 높고, 2.5B, 10B가 높게 나타나 S/S에는 녹색편 청색이 보라편 청색보다 많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F/W에는 10B가 가장높고(21.1%) S/S와 비교시 7.5B, 10B,



2.5PB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F/W에는 보라편 청색의 계열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유행색의 S/S, F/W 색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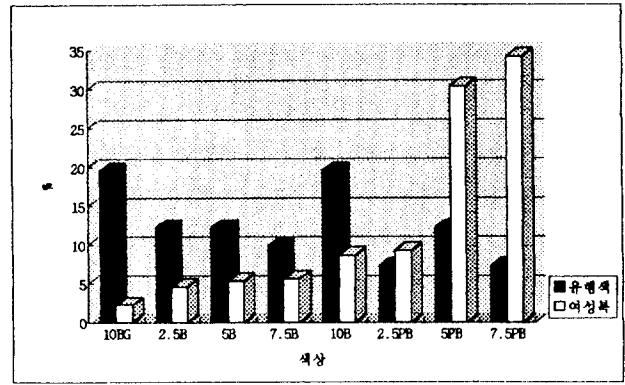
<그림 3> 유행색의 S/S, F/W 톤 분포

톤은 전체적으로 lt와 g톤이 높게 나타났으며, b, s, dp, v 등 고채도의 톤과 dkg는 나타나지않았다. 계절별로 S/S에서는 lt톤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그 다음은 p, ltg, g가 높게 나타났다. F/W에서는 g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lt, sf, 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S/S에서는 F/W에 비해 주로 연하면서 밝은 색상이 유행색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행색으로서 청색은 색상면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톤의 측면에서는 주로 연하고, 밝고, 탁한 톤으로 한정되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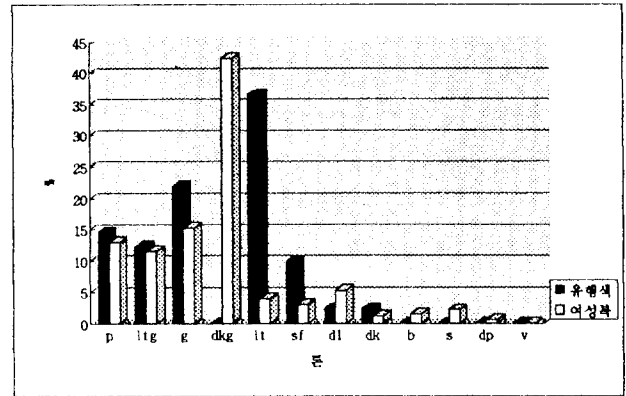
### 3-3-2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청색 분석

국내 여성복에 사용되는 청색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복에 사용된 청색의 색상은 5PB와 7.5PB가 각각 30.3%, 34.1%로 다른 색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외의 색상은 모두 비율은 10%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0BG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여성복에서는 주로 보라편 청색이 사용되며, 녹색편 청색의 사용은 매우 적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유행색과 여성복의 색상분포



<그림 5> 유행색과 여성복의 톤 분포

이러한 결과는 앞서 유행색 분석의 결과와는 다르게 97/98 F/W까지의 유행색으로 제시된 청색에 비하여 지난 몇 년간 의류제품에서는 보라편 청색에 주로 치중됨을 알 수 있다.

톤은 dkg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톤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g, p, ltg의 순으로 빈도가 높고, dl을 제외하고는 모두 5%이하의 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탁한 저채도 색상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행색으로 제시된 청색과 유사한 톤분포를 나타내는 하나 저채도가 색상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유행색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아주 어두운 dkg색상이 현저히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주어 국내 여성복에서는 수수하고 어두운 청색이 주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여성의류에 사용된 청색은 색상면에서는 주로 보라편 청색이 많으며 저채도의 탁한 청색조가 많으며 특히 어두운 네이비블루가 주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서 복식록에 나타난 청색이미지가 주로 짙은 청색인 네이비 블루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남성적인,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 4. 결론

디자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색채이미지는 디자이너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디자인 전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색채이미지는 개인과 문화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다양하거나 보편적일 수도 있으며 사용되는 디자인분야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색을 대상으로 하여 색채표현 특성에 의해 청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 서구 복식에 사용된 청색과 현재 국내 여성의류에서 사용된 청색의 고찰을 통하여 복식에 사용된 청색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복식의 경우는 유행의 개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청색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복식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는 제한된 청색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색이 주된 이미지 요소로 작용하는 복식은 큰 크기로 넷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워크웨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운 청색인 네이비 블루가 주로 사용되어 형식적, 남성적, 활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흰색등과의 배색으로 산뜻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 여성복식에서는 회색면 색조를 제외한 다양한 청색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내 여성의류에서는 연하거나 어두운 청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색상에 있어서는 유행색으로는 녹색면 청색과 보라면 청색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최근 국내 여성의류에서는 주로 보라면 청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색채사용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색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어야 하며 시대적,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조형사, 1995  
 박상호, 『색채계획; 건축, 인테리어의 색채이론과 설계』, 서울: 도서출판 효성, 1993.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1995.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출판사, 1901  
 사토루 후지, 김복영(역), 『미와 조형의 심리학』, 서울: 조

형사, 1994.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1992  
 Arnheim, R., 김준일 (역), 『미술과 시지각』, 서울: 홍성사, 1981.  
 Berry, S., Martin, J., Designing with Color, London: B.T. Batsfordctd, 1991.  
 Birren, F., 김화중(역),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1993.  
 Beaumont, M., 경노훈(역), 『Type & Color: 글자운용의 창조력』,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4.  
 Black, J.A., Garland,M., A History of Fashion, NewYork: Williams Morrow & Company, Inc., 1980.  
 Bond, D., 정현숙(역), 『20세기패션』, 서울: 경춘사, 1992.  
 Colour, Marshall Editions Limited, London, 1988.  
 Hope, A., Walch,M., The Color Compendiu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Lee-Potter, C.,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4  
 Pastoureau, Dictionnaire des couleurs de notre temps, Paris, Editions le Leopard, 1992.  
 Russell, D., Colour in Industrial Design, London: The Design Council, 1991.  
 Zelanski,P., Fisher, M.P., Colour: For Designers and Artist, London: The Herbert Press, 1989.  
 안향신,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1990년대 색채경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3.  
 오희선, 박화순,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4.  
 유명선, “1960년대 Fashion에 미친 Youth Culture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Clothing)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88  
 허인주, “색채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20세기 산업사회의 색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특집- 색과 디자인 3. 최근 선호되는 상품의 색채경향 셋 - 블루, 블랙, 그린”, 『월간디자인』, 9호, 1994.  
 “딜리터리”, 『Fashion Today』, 8월호, 1995.